

● 부처는 가장 훌륭한 정신과 의사다

- 부처가 되는 과정은 어떤 신비로운 변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절의 과정이다. 부정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극복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과정인 것이다.
- 근대 계몽사상가 량치차오는 “불교는 심리학이다”라고 했다. 그의 이 말이 불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다. 요즘 말로 바꾸자면, 부처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셈이다. 그는 인간의 심리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, 인간이 자기 마음의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다.

부정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극복하여
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,
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.